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고관절
논문제목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발생한 반대측 고관절 골절
영문제목 **Contralateral Hip Fractures after Hip Fractures**
발 표 자 송경철 책임저자 이상홍
저 자 이상홍, 송경철, 하상호, 문영래, 이광철
기 관 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고령에서 발생한 시기를 달리한 양측의 고관절 골절 환자의 임상 형태 및 치료결과에 대해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고령에서 발생한 시기를 달리한 양측의 고관절 골절 환자의 임상 형태 및 치료결과에 대해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결과 : 골절의 발생률은 3.1%(20/638), 남녀 비는 3:17였고, 평균 연령은 83.9세(76-97)였으며, 두 골절간의 간격은 평균 26.2개월(2-55)이었다. 골절 형태는 1차 골절에서 전자간 골절 후 2차 골절에서 대퇴 경부 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7예(35%)로 가장 많았으며, 수상원인은 1차 골절시 넘어짐에서 2차 골절의 원인도 넘어짐이 18예(90%)로 가장 많았으며, 2례는 1차 골절에서 자동차 사고, 2차 골절에서 넘어짐이었다. 수술방법은 1, 2차 수술 모두 반치환술을 시행한 경우가 7예로 가장 많았고, 기존 질환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 9예로 가장 많았다. Singh 지수는 1차 골절에서 2.8(1-4), 2차 골절에서 2.5(1-3)였고, 골다공증약 복용 여부는 1차 골절시 2예, 2차 골절시 10예에서 복용하였다. 수술 후 합병증은 일시적인 섬망이 6예로 가장 많았다.

결론 : 낙상 예방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이 철저히 요구되며, 골다공증약의 복용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acknowledgment :

고관절 골절, 반대측
